


공동체 소식



사순 제4주일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 + 냉담가정을 위하여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헌금 안내
- 일시: 3/13(주일) 교중미사 중.

■ 본당 평협회
- 일시: 3/13(주일) 교중미사와 영화상영 후.
- 장소: 나자렛 관.

■ 구역별 부활판공 고해성사 일정 및 장소 안내
- 1구역: 3/19(토) 저녁07:30, 김정원 맥, 7420 W. 99th St., Overland Park, KS, 66211.
- 2구역: 3/18(금) 저녁07:30, 차호섭 맥 (614-598-7908) 331 SE. Wood Ln., Lee's Summit, MO, 64063.
- 3구역: 3/12(토) 저녁07:30, 감영진 맥 (913-948-4643) 9315 W. 150th St., Overland Park, KS, 66221.

■ 맨하튼 공동체 미사
- 일시: 3/10(목) 오후 5:00.

■ 사순시기 영화상영
- 일시: 3/13(주일) 공동체식사 후.
- 장소: 본당지하

■ 복사단 성지주일 전례연습
- 일시: 3/13(주일) 공동체식사 후.

■ 캔사스 한인 탁구대회 본당대표 출전자 시상
- 참가자: 고영방 스테파노, 김대연 요셉, 김민호, 고평원 프란치스코.
- 단체전: 3등, 개인전: C조 우승-고평원, 3등-고영방.

■ 애찬조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 내용: 본당의 모든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찬조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새로 편성된 애찬조의 적용은 부활 대축일 때부터 하겠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23	220	160	49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재린 소피아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고보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차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28	75명	293불	960불
현교정, 감영진, 한봉경, 박동희, 정준구, 차호섭, 임창주 (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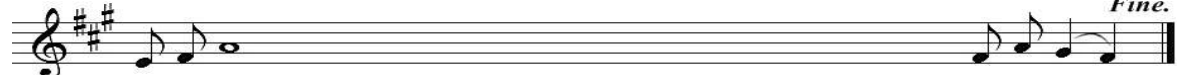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회개와 보속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늘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하늘 나라 잔치에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보여 주십니다.

성화해설

소경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엘 그레코, 1567년, 유화)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9,3.5) 엘 그레코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보게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매우 섬세하게 그려냈다.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한 손으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소경이 죄인이 아닌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사람임을 알려준다. - 지영현

제 1 독서 :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5,9-10.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화답송 :  *Fine.*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기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17-21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11-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쉐 마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다



사순 제4주일 복음은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희년에 어울리는 복음입니다. 입당송은 자비로운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노래하는데, 사순시기 가운데 기쁨을 노래한다고 하여 오늘을 전통적으로 '장미주일'이라 부릅니다. 장미주일은 사순시기가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시기임을 되새겨 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음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합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하고 투덜댁니다 (루카 15,1-2).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카 15,11-32)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유 속 첫째 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하고, 아버지 가산을 탕진하고 후회하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여 그들과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못 마땅해합니다. 비유 속 큰아들의 대사는 그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영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복음서의 비유는 큰아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결국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복음은 작은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을 겨냥한 복음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하는 이들이 들으라고 적은 내용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치면서도 다른 이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며,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우리들이 들으라고 적은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어 주자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와 용서를 청하면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순시기 동안 우리들이 살아 내어야 할 모습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상식

왜 신부님의 제의 색은 계속 바뀌나요?

사제가 입는 제의의 색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백색은 부활절과 성탄절, 성모 마리아와 천사의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은 주님 수난 주일, 성금요일, 성령강림일, 십자가 현양일, 순교자 축일에 입고 녹색은 연중 주일과 그 주간에 입습니다. 자색은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위령미사 때에 입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장례미사와 연미사, 황금색은 대축일에 입습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 딸

주춧돌

지혜로운 솔로몬 왕

다윗 임금은 자신이 죽인 부하 우리야의 부인 밧 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어느날 다윗 임금은 밧 세바에게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임금의 명령에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려 지혜와 부귀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1-2,12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제사를 드리러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에 갔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천 마리씩 바치곤 하였습니다.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청했는데 그것이 하느님 보시에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3,1-15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같은 집의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실수로 죽이는 바람에 다른 여종이 잠자는 사이, 그 아들을 데려다 자기 아들이라 우긴다는 것입

니다. 두 여자는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어떤 결정을 내려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3,16-28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다윗 임금 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싸움보다는 오히려 대화로 모든 것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을 차지하면서도, 이상승배로 인해 왕국 분열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부인을 받아들였고 궁 안에서도 많은 이상승배가 널리 퍼져나가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은 성공한 후에 오히려 더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 둘 곳이 있다는 것

마음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루카 15,24)

- 임의준 신부